出土文獻을 통해서 본
漢語 文尾語氣詞의 起源과 運用 考察

姜允玉**

목차

1. 머리말
2. 출토문헌을 활용한 어법 연구 성과
   2.1 甲骨文
   2.2 金文
   2.3 竹簡과 帛書
3. 출토문헌을 통해서 본 문미어기사의 기원과 “乎”의 발전
   3.1 文미어기사의 基원
   3.2 “乎”의 發展 과정
4. 출토문헌과 전해져오는 문헌 中의 문미어기사 운용
5. 맨말

1. 머리말

고대 한어에서는 의문과 종결, 기원 및 그간 등의 어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문두에 “乎”·“唯”。문장의 중간에는 “者”·“也”。문장 끝에는 “矣”·“乎”·“哉”·“也” 등 여러 가지 어기사를 쓰다. 이 중에서 문두와 문중어기사는 이미 사라졌으며, 문미어기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화 발전을 거치면서 현대 한어로 이어져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문헌에서 사용 번도가 가장 높았던 문미어기사의 기원문제와

* 본고는 학술진흥제단 2004년도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KRF-2004-00 A00120)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상고시기 한여 문미어기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어기사의 운용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일례로 곽말야 선생은 丁末卜: 俏威戊, 學戊乎? (《殷契粹編》425) 문장의 “乎”를 문미어기사로 여겼으나, 王力과 姚錫良은 서주 이전 시기에는 어기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1) 李達良 역시 감골문과 금문에 그 예가 적으므로 곽씨의 설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였고, 2) 張振林은 출토문문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춘추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주장하였다. 3) 이렇게 보고 있듯이 문법적 분분한 가운데 李學勤과 姚錫良은 세대 감골문에서 어기사의 기원을 찾았고, “抑”과 “緋”을 문미어기사의 기원으로 삼았다. 4) 그렇다면 파편 어느 시기부터 문미어기사가 사용되었으며, 어떤 문미어기사를 기원으로 삼아야할 것인지의 문제는 한 번째 정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 상고시기에는 사용된 문미어기사의 운용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즉, 서주 춘추시기의 고문헌인 《詩經》에 쓰인 수많은 어기사가 동시기에 고문헌 《書經》에는 9개의 어기사 즉, “哉(74)・若(10)・矣(7)・焉(4)・乎(1)・已(1)・止(1)・其(1)・所(1)” 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동시기 西周 정 동기 문헌에는 단 한 차례도 어기사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詩經》의 어기사가 오랜 세월 유전되는 동안 후대인에 의하여 정리된 것이라는 설이 난무하게 되었다.

필자는 문미어기사에 산재된 문제를 뿐 아니라, 많은 고대 어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전지에 오는 고문헌을 대상으로 한 학자들에 연구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일례인 왕국유 같은 학자가 출토문문

과 고문헌을 대조 연구하는 ‘이중증거법’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고대 중국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신중국 성립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간결문, 금문, 전국시기 축서본과 한대 백서본 등 출토문헌 자료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어 문미어기사의 기원과 운용 연구에 있어 출토문헌과 고문헌을 활용한 이중증거법과 역사언어학 방법을 사용하여 푸어나갈 것이다.

2. 출토문헌을 활용한 어법 연구 성과

중국은 역대로 고대의 장려적 기록을 통해 많은 문헌을 보전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인 경향과 교훈을 문헌이라는 형식으로 전하고 있어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수량 또한 방대하여 ‘浩如烟海’라는 말로 형용되곤 한다. 신중국 성립 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지하에서 출토된 문헌을 이용한 기존 문헌의 고증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고대 한어를 연구함에 있어 전해져 오는 고문헌 자료만을 이용해서 당시의 언어를 살펴보는 것이 불완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미어기사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언급하기에 앞서 출토문헌이 고대 어법연구에 활용된 성과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5) 《省物旅行》는 《商周器物考》에서 『秦漢 미전의 어문학, 경학, 제자학, 역학자리학 모두가 고대 기록에 쓰여진 고문헌을 시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전해오는 서적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의심스럽거나 잘못된 글자들로 인해 근본을 밝혀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6) 《馬氏文通》 이후 어법 연구가 서구 언어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지 1세기가 지났다. 초기의 어법 연구는 공식적 어법 현상 탐구가 위주였으나, 단어의 《漢語史》를 시작으로 《周法高》 《中華綱要評》 《漢語语法概要》, 《漢語語法史概要》, 《古漢語語法發展》 등이 통사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발전 사의 전반에서 개발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 특히, 《漢語史》의 역사 발전 과정 연구를, 《漢語語法史概要》, 《古漢語語法發展》 등이 통사학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발전사의 전반에서 개발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 특히, 《漢語史》의 역사 발전 과정 연구를, 《漢語語法史概要》, 《古漢語語法發展》 등이 통사학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발전사를 전반에서 개발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漢語史》의 역사 발전 과정 연구를, 《漢語語法史概要》, 《古漢語語法發展》 등이 통사학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발전사를 전반에서 개발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漢語史》의 역사 발전 과정 연구를, 《漢語語法史概要》, 《古漢語語法發展》 등이 통사학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발전사를 전반에서 개발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2.1 甲骨文

갑골문 자료 발굴 이전에는 동한 許慎의 《說文解字》가 중국 고문자 연구
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小篆보다 1000여 년 앞선 甲骨文이 발견되어 현재가
지 출토된 자료가 약 4000여 란에 달한다. 《說文解字》의 小篆, 兩周시기
의 금문의 예를 통해 2분의 1 정도가 고석되었고 이는 고대 언어학 연구에 있
어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근근 20년 동안 갑골문 출토 자료를
이용하여 고대 한어 어법을 연구한 성과는 실로 괴목할만하다.

趙誠은 갑골문 품사를 분류하여 품사의 검류함성을 밝혔으며,7) 張玉金은
복사의 "㝢"의 음법과 "惠"와 "唯"가 여기조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사에
속하며 여기를 강조하는 작용이 있다고 연구하였다.8) 張漢東은 또 《詩經
》・《尚書》중의 어사 "薺"이 동사 "延"에서 허화된 것으로 여기고 그 기원을
갑골문의 "延"에서 찾았으며,9) 季旭昇은 출토문헌의 "惠"용법과 《詩經》을
서로 대조하여 과거 《詩經》의 "惠"에 대한 해석 보류를 "眞의", "的確"로 해
석하면서 산재해 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10) 구법에 관한 연구 역시 수확이
있는하였다. 陳夢家, 管燮初 등은 복사의 命辤는 의문문이라고 하였으나, 李
學勤과 戴錫圭는 모든 명사가 의문문이 아니라는 반박론을 편으며, 陳昭容은
여러 학자의 설을 종합하여 갑골문에는 "于"자식 피동문만 존재하며 피동문이
쓰이지 않는 시기이고, 서주 시기 문문에는 "見"자식, "為"자식이 쓰이기 시작했
다고 밝혔다.11)

7) 趙誠(1992), 〈甲骨文動詞探索〉, 《古文字研究》第19輯, 中華書局.
8) 張玉金(1990), 〈卜辞中薺的用法〉, 《中國語文》1期.
9) 張玉金(1988), 〈甲骨卜辭中"惠"和 "唯"的研究〉, 《古漢語研究》1期.
10) 季旭昇(1996), 〈從古文字談"詩經"中幾個特殊的"惠"字的解釋〉, 《于省吾教授百年誕辰紀念文集》, 吉林大學出版社.
11) 陳昭容(1998), 〈關於"甲骨文被動式"研究的檢討〉, 《甲骨文發現一百年學術研究會論文集》
2.2 金文

《金文著録簡目》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물은 7,312건이며, 중공사회과학원에서 출간한 자료인 《殷周金文集成》에 의하면 1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金文의 발견은 甲骨文과 미간가지로 고문헌의 枚訂과 12) 論語文字學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詩經·豳風·七月》의 '以介眉壽', 《詩經·小雅·楚》의 '以介景福', 《詩經·小雅·甫田》의 '以介雅穀'에 쓰인 '介'字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불끈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데 趙錫圭가 청동기 銘文에 있는 자료를 통해 '介'字는 소원을 비는 뜻을 의미하는 '丐'字로 해석해야 한다고 고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였다. 어부 분야에 있어서는 趙誠이 금문의 '隹・唯(誰・誰)'의 용법을 분석하고, 금문 '隹'가 명사, 동사, 전치사로 쓰인 용례를 정리하였으며, 13) 王曉는 대량의 금문 자료를 가지고 전해져 오는 문헌과 대조하여 '始姑'와 '今'의 의미가 있음을 밝혀왔다. 14) 唐鈞明은 정량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其'자가 대로 쓰인 것은 서주 중기와 말기 이후의 일이며, 상주 금문에 이미 문언과 백화의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왔다. 15) 뿐만 아니라, 唐씨는 어법학자들이 일상의 표시법을 '數+動'식만 언급하고 있었는데 '動+數'식이 서주 금문시기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6) 이 밖에도 陳永正은 서주와 춘추시기 청동기 문명 중의 허사를 직접사와 가기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으며, 17) 趙平安은 청동기 문명에는 자주 보이는 "추어+之+술어+기물명"이 결어 형식임을 밝혀내어 선진문헌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

---

12) 王國維는 《書タイト詩尹氏說》이라는 문장에서 《尚書·畢命》의 小序를 인용하여 司馬遷 《史記》의 《周本紀》에 "命作冊畢公"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는 司馬遷이 잘못 이해하여 "畢"字 뒤에 "公"字를 추가한 것이며, '作冊'은 官名이고 '畢'은 인명이며 周 康 王 시대의 '畢公'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고증하였다.
13) 趙誠 (1998). 《金文의 "隹・唯"》, 《百年誕辰紀念文集》.
2.3 竹簡과 帛書

최근 출토문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바로 戰國·秦·漢 시대의 목판·백서 자료들이다. (참고로 최근 발굴된 戰國·秦·漢 시대의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면 부록(1), (2)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茹錫圭 선생은 简帛 文獻이 古書를 詰勘하고, 当時の 언어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戰國·秦·漢 시대의 简冊 및 帛書의 발굴에 따른 가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유실된 佚書의 발견으로 중국 고문헌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음을 뿐 아니라, 일부 학술사 부분에서 미각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단서가 제공되었다. 예를 들면, 《漢書·藝文志》에 “startIndex”라고 기록된 佚本 《晏氏春秋》 및 《六韜》, 《尉繚子》에 대해 일반적으로 모두 《漢書·藝文志》에 기록된 原本이 아닌 漢 이후의 僞作으로 여겼는데, 銀雀山의 西漢初期 輿에 서 이러한 서적의 일부 鉛筆本 削減이 발굴되면서 原本임이 밝혀진 경우가 있다.

둘째, 現存하는 古書에 대한 考證, 즉 古書의 時代, 真偽 및 師承 부분에 대한 교정과 보충, 古書의 文章 내용 解讀에 있어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18) 趙平安(1991), 《論鉤文中的一種特殊句型》, 《古漢語研究》 4期.
19) 茹錫圭 교수는 《中國古典學重建中應該注意的問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자료의 출토로 오래 전에 유실된 많은 신전 古文獻이 새로운 세계에 신보이게 되었고, 현재 전해지는 많은 先秦 古文獻은 각 佚本에 비해 더욱 오래된 简冊 및 帛書 형식의 古本을 가지게 됨으로써 과거 古書 중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없었던 많은 부분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바로 잡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일찍이 보편적으로 漢代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많은 古書들이 확인하니 先秦 시기의 작품이 증명되었고, 戰國末期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 古書들이 戰國 中期 심자어는 더욱 이론 시기의 작품이 밝혀졌다. 아울러 先秦 古書의 세계 또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老子》는 馬王堆 漢墓와 郭店 楚簡에서 모두 발견되었는데, 竹簡 《老子》甲本에 “絶知者 弊, 民得百倍, 絕巧利, 盜賊無有, 絶為 態, 民得至慈.”라고 기록되어 있고, 今本 《老子》第九章과 馬王堆帛書 《老子》本 第六十三章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絶知 弊”구절의 경우 今本 및 馬王堆帛書에서 모두 “絶正 弊”라고 하였으며, “絶為 態”의 구절은 今本 및 馬王堆帛書에서는 모두 “絶仁 弊”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은 儒家와 道家 사상의 분기점이 되는 글자가 “不知・仁・義”가 郭店 楚簡에서는 “辯・為・慮”로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의 가치가 매우 높다.20)

셋째, 簡帛 文獻은 戰國時代에서 秦漢時代의 고대 어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서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지니고 있다. 이 사실은 문헌을 활용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大西克也是“母”와 “無”的 용법에 대하여 사상이나 역사서에서는 “無”를 동사로 사용하고 “母”는 부사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법률 또는 행정 부분의 서적은 동사나 부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母”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하였다.21) 何謙雅也馬王堆帛書 《老子》와 鄭德閔 理論를 연구하였고,22) 張麗君은 마왕퇴 백서의 《五十二病方》과 헬리아스 율이와 비교하여 양사 “病”를 정리하였으며 “病”을 동사로 보았다.23) 뿐만 아니라, 徐莉莉는 마왕퇴 백서를 자료로 수를 세는 법을 연구한 바 있다.24) 張萬起는 양사 “枚”가 한대 초기에 생겨났으며 한대 간독 중에서 “枚”의 용법이 상당히 다양하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혔다.25) 王銘과 潘春田은 睡虎地秦簡 어법특징을 체계적으로 저술한 바 있다.26)

20) 이 밖에 先秦-秦漢간의 문헌 文獻은 史料로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지니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論述 简冊 자료는 그 수량 면에서 中國 古文献 史料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그 한 예로 長沙에서 발굴된 三國時代 船棺 簡冊의 경우 150만자 정도로 《三國志・曹操》의 기록의 2배에 달하며, 《三國志》 총字수를 월천 초과하고 있다. 또한 居延에서 발굴된 簡冊은 3만 장에 달해 三國 史料 자료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다.

22) 何謙雅(1992), 《馬王堆漢墓竹書“老子”手抄本和“秦律”殘卷中的“弗”》, 《古漢語研究》 4期.
23) 張麗君(1993), 《針灸學詞“病”“治”考釋》, 《古漢語研究》 1期.
24) 徐莉莉(1997), 《馬王堆漢墓帛書(肆)所見臆法考察》, 《古漢語研究》 1期.
26)
3. 출토문현을 통해서 본 문미어기사의 기원과 “乎”의 발전

3.1 문미어기사의 기원

상고 한어에서는 문미어기사를 사용하지 않고서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이 많았다. 예를 들면:

癸酉卜。乙亥不風。乙亥其風？（《乙》435）
乙亥以巴爾伊불지 않음요？乙亥일에 바람이 불까요?
我生不有命在天？《書·西伯戡黎》 （《史記殷本紀》에는 문장 끝에 “乎”가
있음）
 오늘 우리의 삶은 폭풍이 하늘에 달려있지 아니한가?
 我有嘉客，亦不夷怿？ （《詩·商頌·那》）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반갑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상고시기 한어에 문미 의문어기사가 없었을까? 王力과 郭錫良선
생이 서주 이전 시기에는 어기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張振林은 춘
추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적이 郭沫若선생은 감활문의 “乎”을 의
문어기사로 여긴 바 있다.27) 그렇다면 어느 시기부터 문미어기사가 사용되었
으며, 어떤 문미어기사를 기원으로 삼아야할지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1) “印(抑)”・“執” 기원설

감활문에서 “印(抑)”・“執” 두 자는 저주 쓴던 글자로, “印(抑)”은 ㅋ ㅋ으
로 손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당게 하는 형상이며, “抑(抑)”자의 고자이며, 印族
이라는 명사로 쓰였다.28) “執”은 혜 衝자형으로 양손에 형태를 가리는 모습이며

26) 王錫(1982), 《雲夢秦墓竹簡所見某些語法現象》, 《語言研究》 1期.
27) 張振林(1987), 《秦墓竹簡所見某些語法現象分析》, 《語言研究》 1期 의 다수.
28) 島邦南(1982), 《殷墟卜辭綜類》에서  OBJ와  $ 주행을 印으로 정리하였다. 印과 抑은 古今
字 관계이다.
주로 실사인 "포로로 삼다"라는 동사나 명사로 쓰였다.

예를 들면:

(1) 癸亥卜: 小方不園今秋 印(抑)? (合 20476)
癸亥일에 점을 칩니다: 小方이 이번 가을에 印을 포위하지 않을까요?
(2) 貞 : 適不孰. 王占曰: 適勿孰 (합 5929, 5930)
점은 합니다. 適가 포로가 되지 않겠지요? 왕이 점을 보고서 말하기를: 아마
適가 포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 李學勤은 《關於師組卜辭的一些問題》문장에서 "印(抑)"·
"孰" 두 글자를 묘미어기사로 인정하였으며, 29) 1982년 미국 스탠퍼드대학 Da-
vid S. Nivision 선생도 《問聞》에서 "이 교수의 연구로 인해 상대의 貞人
이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형 단어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며 이
서의 설을 따랐다. 30) 두 학자가 거론한 묘미어기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癸酉卜, 貞: 方其正今二月印(抑). 不孰. 余曰: 不其正. 允不. (合 20411)
癸酉일에 점을 처서 묻습니다. 적인 방이 이번 이월에 침범하리 불가요? 침범
하려 오지 않을까요? 내가 점쳐서 말하기를: 아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과
연 침범하지 못했다.
癸酉卜, 王貞: 自今癸酉至于乙酉. 邑人見方印? 不其見方孰. 一月.(南·師
1·59)
癸酉일에 왕이 점을 처서 묻습니다. 오늘 측癸酉일부터 다음乙酉일까지
邑의 사람들이 적인 方을 담배할까요? 아니면 적인 方을 담배하지 않을까요?

위의 "印(抑)"과 "孰" 예에 대해서는 1988년 裴錫圭 선생도 《關於殷墟卜辭
的命辭是否存在句的考察》에서 "가장 의심할 바 없는 묘미어기사"라고 하였다.
아울러 抑을 抑으로 고칠과 동시에 李學勤 선생이 고석한 師組卜辭 31) 외에 賢
組卜辭 32)와 午組卜辭 33)에서도 이와 관련된 51조의 예를 찾아냈다. 34)

29) 李學勤 "印"을 "及"자로 역임.
30) 1982년 상대문명국제도통회의에서 발표한 원고임.
31) 林漢은 1965년 "師組卜辭는 무정 전기의 왕실 복사라고 고증하였다. 〈甲骨斷代中一個
重要問題的再研究〉, 《古文字研究》第1권, 1979년.
32) 師組卜辭와 賢組가 편의기로 武丁기의 왕의 복사이다.
즉, 이 세 편의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두 師組卜辭 중의 "印"과 "執"을 문미어기사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印"과 "執"에 관련된 51조의 예를 모두 문미어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裘錫圭선생이 예로 든 師組卜辭 중의 "印"·"執"은 문미어기사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壬午卜，爭貞：□其來印(抑)? 不其來執?《合》800
壬午일에 점을 쳐서 문請您：印(抑)족은 공남하는 것이지요? 일반포로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2) 貞：御婦印(抑)，勿執? (49)《合》802
점을 쳐다：義가印(抑)족을 아내로 맞이할까요? 일반 포로로 하지 말까요?

(1) 문장의 "來"를 후선생은 자동사로 여기며 "印(抑)? "執"이 "정반 선택의 문문"의 문미어기사로 쓰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印(抑)? "執"이 의문어기사로 쓰였다면 였 것인지 아니면 오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를 묻는 문장이 되므로 군이 정반 선택의문문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卜辭에서 "來"는 사실 타동사와 자동사의 응법 둘 다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甲辰卜，貞貞：委來白馬? 王占曰：吉，其來馬五。 (丙 157)
甲辰일에 점을 쳐서 문請您：추가 白馬를 공남할까요? 왕이 복조를 보고 말하기를 결하다. 5마리의 말을 보내올 것이다.
(4) 貞：來夫? 不其來夫? (丙 342)
점을 쳐다：을이 개를 공남할까요? 개를 공남하지 않을까요?
(5) 禽不其來舟? (乙 7203)
禽이 배를 보내오지 않겠까요?

윗 문장의 "來"는 모두 타동사로 쓰여 '공남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33) 陳夢家는 午組卜辭에 午，甲 두 사람의 貞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34) 裘錫圭(1988),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 《中國語文》1期. 이 중에는 李學勤이 다른 예가 21조 있다.
따라서 예문 (1)의 "□其來印(抑)? 不其來執?"의 "印(抑)"・"執"은 "來"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접을 치며 묻는 내용으로 "某人 또는 某 지역에서 공납하는 것이 印側의 사람이지 일반 보로는 아닌 것이지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従來"의 "來"처럼 자동사가 아니라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복사에서 "來翁( 강을 공납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來印(抑) (인측을 공납하라)"과 "來執(보로를 공납하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用執? 用印(抑)?" (續存 2.268)
(포로로 할까요?) (입축을 바칠까요?)

위의 문장도 구선생은 문미의문어기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卜辞중의 정반의문문은 "雨(정문) "不雨?"(반문) "雨不雨?"(선력의문문) 형태로 취하므로, 두 개의 "用"을 사용하여 정반의문문형으로 묻는다는 것이 역시 복사 문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아래의 예문들은 "印", "執"을 실사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1) 癸酉卜，貞：方其正今二月印，不執，余曰：不其正。允不。（合 20411）
(2) 癸酉卜，王貞：自今癸酉至于乙酉，邑人見方印？不其見方執？一月。（南・師 1：59）
癸酉일에 방야 접을 처서 묻습니다. 오늘 죽 癸酉일부터 다음 乙酉일까지 본의 사람들에 적인 方을 보로로 삼으리고 엽탈할까요? 아니면 엽탈하지 않음까요? 1월에.
(3) 戊申卜：方啓自南，其固印。戊申卜：方啓自南，其固印。（合 20415）
戊申일에 접을 처서 묻습니다. 方이 남쪽을 열고서 들여오면 印축을 포위할까요?
(4) 癸亥卜：小方不固今秋印。（合 20476）
癸亥일에 접을 처서 묻습니다. 小方이 이번 가을에 印축을 포위할까요?
(5) 涉三，既獲印。（合 19755）
涉河의 산은 이미 판촉을 얻었다.35) 과연 얻었다.

 필자는 이 주장은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하여 "印"·"執"과 관련된 기타 고 문자 자료와 함께저오는 문헌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상대 규범에는 이에 "印"·"執"이 쓰인 바가 없으며, 다만 서주의 후기 청동기에 처음 보인다. 《毛公鼎》의 "用印邵皇天"으로 이때 "印"은 "印"의 의미로 쓰였으며, 《曾伯簫》 "印文繁華"의 "印"은 "安"의 의미로 "다스리다"라는 실사의 뜻으로 쓰였다. 그리고 "執"은 《今文甲盤》·《敘盤》·《今文鼎》과 中山國 《兆域圖》에 "잡다"·"처리하다"의 실사로 쓰였을 뿐 문미어기사로 쓰인 용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 시기 전혜저오는 문헌 역시 "印(抑)"과 "執"은 갑골문에서와 같이 실사의 의미로 쓰였으며, 문미어기사로 쓰인 용례는 하나도 없다. 다만, 전혜저 오는 문헌 중 《左傳》·《論語》·《孟子》 등에서 전환이나 선택의 의미로 쓰인 접속사 용례가 있는데 모두 전주의 무시기 이후의 일이다.36)

 사실 갑골문에서 문미어기사로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 전국시기 문헌에 와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언어 발전 규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전주의 무시기 문헌에는 이미 《詩》, 《雅》, 《頌》, 《歴》 등의 어기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유독 "抑"과 "執"만 계승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師軌》·《左傳》는 문미어기사로 자주 쓰이면서 다른 종류의 복사에 는 쓰이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詩》·《書》·《禮》·《易》 등 많은 회제로서는 좀 더 고려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2) "執" 기원설

 "執"자는 갑골문과 금문에 모두 쓰였으며, 갑골문에서는 실사인 재난의 "執"
자와 "才"의 차자로 문미어기사로 사용되었다는 설이 있다. 郭沫若은 그 증거로 《殷契緯編考釋》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 바 있다.

(1) 賢 : 呼伐邦人才(哉).
    賢 : 勿人才(哉). (合 6252)
    점을 친다. 사람을 불러 그을 치고 인체를 지날까요?
    점을 친다. 인체를 지내지 말까요?
(2) 五牛二□用才. (合 34406)

위의 예문에 대하여 委頌圭(1988)은 "才(哉)"자를 문면어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고대 한어에서 의문을 표시하는 "哉"는 반문형식이나 의문대사. 반문 부사가 함께 쓰일 때 반문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은 "哉"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씨는 위의 문장에서 "才"가 다음에 못 다 새긴 글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37) 이 견해에 대해서는 필자도 구선생의 설을 따르다. 서주급문 시기에 이르면 "哉"자가 비로소 문미어기사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王曰 : 師詢. 哀哉! 今日天疾喪降喪. 《師詢篇》
師焉以侍問者 : 師詢이여. 슬프구나! 오늘 하늘이 진노하여 주나라에 사란을 내리셨다.
哀哉! 用天降亦喪四國. 《禹鼎》
슬프구나! 하늘이 사방에 사란을 내리셨다.

(3) "乎" 기원설

감골 복시중에는 "乎"자가 문미에 여러 차례 쓰였기 때문에 郭沫若은 아래 문장의 "乎"자를 문미어기사라 여겼다.38)

丁未卜. 扶 : 侑咸戊. 學戊乎? (《殷契緯篇》425)

38) 郭沫若. 《甲骨刻辭的語法研究》에서 《殷契緯篇》 425를 인용하면서 "乎"를
   빼먹은 뒤桨의 의문을 따라 사실상은 추장성의 "乎"자라 여기고 문미 의문어기사라 여
   기하고 있다.
정미일에 승가 점을 채서 문습드려: 慶戊와 學戊에게 俳제를 치낼까요?

그러나 구선생은 “乎”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세웠다. 39) 이 글자가 제사를 받는 사람 이름 뒤에 쓰였는데 그 뒤에 희생 제물 단어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乎”를 “제사와 관련 있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乎”의 문미 오문어기사 기본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40) 張玉金선생도 구선생의 설을 따라 “乎”자가 아마 동사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1) 결국, 두 학자 모두 “乎”자에 대하여 미결 과제나 추측의 형 태로 남겨 두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면 두 선생의 설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王午于： 峻土，延巫帝乎。（合 21075）
王午于에 토신에게 峻제를 지내고 연이어 帝에게 侖제를 지낼까요?
甲子于，王貞： 土方其敬乎。（合 20392）
甲子于에 王이 점을 채서 문습드려.
王占曰： 其有甲偝，吉乎。（合 376反）
王이 점을 채서 말합니다 : 王일에 분만하면 견점하였다.

필자는 위에 속한 예문의 “乎”자가 구선생이 주장한 것처럼 제사명과 관련된 경우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예문의 “乎”가 제사시의 희생물이나 제사 명칭이라면 아래 예문 처럼 “乎”자 앞에 수사－나 그 등이 왜야 하는데 그런 예가 卜辭에 없다.

辛未貞： 今日告其步于父丁－牛（合 32677）
辛未일에 점을 채서 문습드려: 오늘 告가 父丁에게 소 한 마리를 드려 步체를 지낼까요?

神自上甲－牛。（合 14358）

39) 同註 37.
40) 40의 문장 “它會不會指與祭祀有關的某件事呢？所以用‘乎’字結尾的這種命辭究竟是不是問句，還有待研究。”
41) 張玉金(1995).《論殷墟卜辭命辭的語氣問題》. 《古漢語研究》 3期.
성제, 張선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동사 "허(부르다)"일 가능성도 적다. 만약 일반 동사라면 "허 : 乎禽酒岳(禽을 불러와 평에 酒제를 지낼까요?)" (合集 14469). "己酉丑, 乎貞 : 亦乎雀嫖于之(己酉丑에 점을 처서 乎이 문술입니다. 다시 酒을 불리와 之에게 개로 燒제를 지낼까요?)"(合集 1051)처럼 "乎"자가 다른 동사(제사동사)의 앞에 쓰여야 한다. 이 두 문장의 예는 견어의 형식으로 쓰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侀祖丁乎"와 같은 문장의 "乎"자를 동사로 여긴다면 이 문장은 "侀祖丁, 乎"로 끝어 읽고, 侀祭로 조정에 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가서 어떤 사람을 불러올까요? 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어딘가 어색하다.

필자는 이상에서 거론한 세 가지 분석을 근거로 예문 (1)의 "乎"를 문묘의 문에가기로 쓰인 의문문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당시의 어법 현상과도 부합하게 되므로 마땅히 "乎"를 한여 문에가기사기의 기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乎"의 발전 과정

"乎"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갑골문에 문에가기사로 20차례 쓰였던 "乎"자가 서주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서주 청동기 명문의 격식이 주는
제한과 기사체 문장의 특성 때문에 여가사가 쓰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전국시기 의문체 문장의 성질을 가진 문은 “乎” 자가 9차례 나타나며,
전국·전한 시기로 내려오면서 사용빈도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 표
(1)과 표(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해져 오는 문헌인 《尚書》에도
4차례, 《詩經》에 11차례(의문어기사 5차례, 감탄어기사 6차례) 등으로 쓸
이는 동 출현 빈도수는 적지만 출현 전국사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전한시기 문헌으로 이어지면서 그 용례가 상당히 늘어나 “乎” 字
의 언어 발전 규율을 살펴볼 수 있다. 좀 더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 출
토문헌에서 “乎”的 발전과정을 탐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thead>
<tr>
<th>출토 문헌</th>
<th>商代 甲骨文</th>
<th>西周 金文</th>
<th>春秋 金文</th>
<th>戰國 金文</th>
<th>竹簡</th>
<th>帛書</th>
<th>竹簡</th>
<th>帛書</th>
</tr>
</thead>
<tbody>
<tr>
<td>乎</td>
<td>20</td>
<td>0</td>
<td>0</td>
<td>9</td>
<td>24</td>
<td>0</td>
<td>52</td>
<td>78</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고문헌</th>
<th>莊子</th>
<th>戰國策</th>
<th>國語</th>
<th>東周</th>
<th>戰國</th>
<th>晏子</th>
<th>春秋</th>
<th>管子</th>
<th>韓非子</th>
<th>孟子</th>
<th>春秋</th>
<th>左氏傳</th>
<th>謠語</th>
</tr>
</thead>
<tbody>
<tr>
<td>乎</td>
<td>312</td>
<td>302</td>
<td>285</td>
<td>254</td>
<td>197</td>
<td>200</td>
<td>174</td>
<td>127</td>
<td>118</td>
<td>104</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고문헌</th>
<th>德經</th>
<th>楚辭</th>
<th>今文 ildo書</th>
<th>詩經</th>
<th>竹書</th>
<th>紀年</th>
<th>公孫</th>
<th>龍子</th>
<th>六韬</th>
<th>陽允子</th>
<th>春秋</th>
<th>公羊傳</th>
<th>春秋</th>
<th>殼梁傳</th>
</tr>
</thead>
<tbody>
<tr>
<td>乎</td>
<td>9</td>
<td>19</td>
<td>4</td>
<td>11</td>
<td>3</td>
<td>11</td>
<td>15</td>
<td>9</td>
<td>39</td>
<td>36</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1) 감골문 중의 “乎”
1. 의문어기사를 나타낸다.

甲子卜，王貞：土方其敦乎。《合 20392》
甲子日氣王宮於於乎乎。土方之邦若何者乎？
壬午卜：燎土，延巫甘乎。《合 21075》
壬午日氣王宮於於乎乎。社神於 вок백土，延巫甘乎。
2. 추측어기를 나타낸다.

왕은 (其唯) 甲.with 이 명의 (376이) 
와는 복조를 보며 말하기를 : "만약 내일에 분만하면 싫겠다.

(2) 금문 중의 "乎"

전국시기 명문 중의 "乎"는 중산왕 기물에서만 아홉 차례 문문어기사가 사용되었음을 주다. 그 이유는 중산왕 명문이 상대의 자명제 명문이나 서주시기의 기사제 명문과 그 문화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중산국 청동기물의 내용은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 논리를 펴고, 선조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는 의론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乎"자 외에도 다른 어기사가 많이 쓰였다.

1. 추측어기

於靡. 欽哉. 社稷其序乎! 《中山王方壺》
오호. 밝도다. 사적에는 화양이 있을 것이다.

2. 반문어기

戇迷惑於子之而亡其邦. 爲天下戮. 而皇(況)才於少君乎? 《中山王方壺》
구. 이에게 희생해서 그 나라가 망했으니 결국 친하의 처세가 되었다. 하물며 어떤 왕에게 있어서라?

3. 감탄어기

於靡. 先王之德弗可復得. 《蕉蕉壶》
아아. 선왕의덕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
於靡. 允哉若言. 《中山王方壺》
아아. 이 말이 맞도다.
(3) 전국 시기 竹簡과 帛書 중의 “乎”

1. 의문어기

文王聞之，曰：“雖君亡道，臣敢勿事乎？” 上博楚簡《容成氏》
문왕이 그에게 문자 답하기를："비록 인생이라도 도가 없으면, 신하가
섭기려 하지 않음까요?"
‘三無乎，無聲之樂，無體[之]禮，無服之喪。 上博楚簡《民之父母》
三無한? 소리 없는 음악이요, 결처제 없는 예요, 상복을 입지 않은 상주이
다.

2. 특정의문문 어기

특정의문어기려하면 의문대사를 사용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문문에
답을 하도록 하는 문형이다. 許仰民은 전해져 오는 문헌을 이용하여 “乎”를 사
용한 특정의문문이 사용된 시기가 전한시기 이후라고 하였다.42) 그러나 전국
시기 후반 문헌인 上博 楚竹簡에 그 용례가 여러 차례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
정의문문의 기원을 전국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何……乎
如天不雨，水將涸，魚將死，其欲雨有甚於我，何必祠乎命乎？
(上博楚簡《魯邦大旱》)
만약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고통되고 물고기가 죽으니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다 더 바랄턴데 제시자니고, 명을 내려야 할까요?

3. 감탄어기

成孫弋曰：“矣，善才，言乎！” 郭店楚簡《魯穆公問子思》
성孫弋이 말하기를：아 좋구나, 이 말이여!

4. 반문어기

“乎”는 점중을 나타내는 부사인 “況”, 부정부사 “毋” · “不”과 “不可” · “不亦”
등이 “乎”와 호응하여 반문어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도 “不亦……乎”.

“可不……乎”는 고정형식으로 출현빈도가 가장 높다.

況……乎
箋箋弗知，而況於人乎？ (郭店楚簡《繚衣》)
況植是飾事也，枸杞於乎，何以是事也，言以所告乎？
箋箋弗知，而况於人乎？ (上博楚簡《繚衣》)
況植是飾事也，枸杞於乎，何以是事也，言以所告乎？
毋……乎
孔子答曰：「邦大旱，毋乃失諸刑與德乎？」 (上博楚簡《魯邦大旱》)
孔子之復事也，枸杞於乎，何以是事也，言以所告乎？
不……乎
行此者，其有不王乎？ (孔簡《孔子詩論》)
行此者，其有不王乎？ (孔簡《孔子詩論》)
或以是行，其有不王乎？ (孔簡《孔子詩論》)
或以是行，其有不王乎？ (孔簡《孔子詩論》)
反此道也，民必因此重也以復之，可不懼乎？ (郭店楚簡《成之聞之》)
反此道也，民必因此重也以復之，可不懼乎？ (郭店楚簡《成之聞之》)
反此道也，民必因此重也以復之，可不懼乎？ (郭店楚簡《成之聞之》)
反此道也，民必因此重也以復之，可不懼乎？ (郭店楚簡《成之聞之》)
出以百兩，不亦有難乎？ (上博楚簡《甘棠》)
出以百兩，不亦有難乎？ (上博楚簡《甘棠》)
出以百兩，不亦有難乎？ (上博楚簡《甘棠》)
出以百兩，不亦有難乎？ (上博楚簡《甘棠》)

(4) 진한 竹簡과 布書 中의 “乎”

1. 의문어기

弟子曰：吾何故？執御乎？執射乎？ (漢簡《論語·子罕》)
弟子曰：吾何故？執御乎？執射乎？ (漢簡《論語·子罕》)
弟子曰：吾何故？執御乎？執射乎？ (漢簡《論語·子罕》)
弟子曰：吾何故？執御乎？執射乎？ (漢簡《論語·子罕》)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하겠는가? 말로는 잡아야 하겠는가? 할 수는 일
을 잡아야 하겠는가?

2. 반문어기

毋……乎
毋……乎
毋……乎
毋……乎
居間而行間，毋乃大閹乎？ (漢簡《論語·雍也》)
居間而行間，毋乃大閹乎？ (漢簡《論語·雍也》)
居間而行間，毋乃大閹乎？ (漢簡《論語·雍也》)
居間而行間，毋乃大閹乎？ (漢簡《論語·雍也》)
자신이 간략함에 처하고, 다시 간략함을 행한다면, 너무 간략한 것은 아
닙니까?
名者，人治之大者也，可不懼乎？（漢簡《儀禮》）

병이란 사람이 다스려야 할 가장 큰 일거늘, 어째 신중하지 않음을 수 있었는가?

3. 특정의문어기

何......乎

誠使天下之民皆懷仁愛之心，禍災何由生乎！（漢簡《文子》）

진실로 천하의 백성들에게 인애하는 마음을 품으라 했거늘 재앙이 어쩌게나는가?

4. 감탄어기

鄙哉，吾吾乎！（漢簡《論語·憲問》）

비투하다. 너무 단단하다구나.

誰欺歟？欺天乎！（漢簡《論語·子罕》）

내 누구를 속였는가? 하늘을 속였구나?

4. 출토문헌과 전해져 오는 문헌의 문미어기사 운용

서주 춘추시기의 서적인《詩經》에 쓰인 많은 어기사. 예를 들면 "兮(183)·只(4)·哉(51)·也(62)·且(13)·猗(3)·忌(8)·而(6)·与(3)·矣(99)·焉(13)·乎(11)·已(4)·止(85)·其(5)" 등이 商, 周, 春秋 및 戰國 시기 청동기 문헌에는 잘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학자들이《詩經》의 진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선인시기로부터 전해져 오는 문헌에 쓰인 많은 어기사는 분실감 유로 이후 후대 사람들이 고쳐 써넣은 것이라는 설이 난무하게 되었고, 張振林 선생은 출토문헌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어기사가 춘추전국시기에 와서야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詩》·《書》·《易》에 대한 문헌적 가치는 많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와 평가가 있었으며, 특히 대량의 어기가사 사용하고 있는《詩經》의 언어 사료적 진실성은 괴랄한 선생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인정받은 바 있다.43)
그리므로 우리는 전의 분서개류로 인해 후대 사람들의 정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과학적으로 설계로 《詩》·《書》·《易》 등의 문헌 전체적인 가치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詩經》에 대량으로 쓰였던 어기사들이 같은 시대 출토문헌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출토문헌이든 전해져오는 문헌이든 문장의 성격이 다르면 이로 인해 문헌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어기사 사용도 달라져서 생각하는 운용상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 출토 문헌 자료의 문제와 문미어기사의 운용

《商周青铜器铭文选》 東周篇에 실린 392편의 청동기 명문에 나타난 어기사를 조사해보면 출토시기에는 《呂王光鼎》(1), 《魯器錘》(1), 《玩壺》(1)로 단 3차례 어기사가 사용되었다. 전국시기 역시 어기사가 있는 명문은 6편으로 28개의 어기사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中山王寧鼎》: 采(5), 施(也)(4), 吾(1), 乎(7)
《中山王方壺》: 焉(2), 施(也)(3), 采(1), 乎(1)
《彝器壺》: 乎(1), 《魑陵宗豆》: 采(1), 《陳侯因骨鼎》: 采(1), 《舌舌符》: 乎(也)(1)

이렇듯 출토와 전국 시기의 문미어기사가 392편의 명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전국시기 100가 이상의 명문 중에 중산국 3편의 명문에 실린 어기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쓰인 바 없다. 뿐만 아니라, 鄭君啓節는 舟節에 164자, 車節에 147자나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사가 단 한 글자도 없다.43) 그 원인은 무엇일까?

43) “盡管《詩經》可能經過刪改潤色，但在基本上是原始資料。因此，我們對於《詩經》的文學價值和史料價值，更有藥重的評論。而《石鼓》更重要的貢獻是確定了美學古典文學的一部重要的實質《詩經》的真實性。”
44) “則，制度期文字是時間上使用辭彙的斷開而被收集成書時為避免用此字的使用而中止的必要性。因此《毛公鼎》・《多友鼎》・《鄭君啓節》・《散盤》等是斷開後的時間而大半是先後上未作考慮，因此，名文獨人個別的問題和問題可齊平地看出而在結果外文字的問題是無法應有的。”
첫째, 청동기 민문의 격식이 주는 제한과 비구어적 문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대 청동기는 모두 제례용으로 주나라의 종법제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따라서 그 민문은 우아하고 정중하여야 했기 때문에 언어도 잘 다듬 어져있다. 문장은 시간이 흘렀지만 정형화된 틀 속에서 전시기의 문형을 담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주시기 《毛公鼎》과 춘추시기의 《叔夷鐘》 문장 을 비교해보자.

《毛公鼎》: "女為(裏)敬(荒)亭, 夕(易)夕(易)夕, 惠我一人,...康能四國, 俗(欲)我弗(余)王(孫)惠, 女為(裏)敬(荒)亭, 鶴(格)夕(易), 敬念王(威)不贈(易)
《叔夷鐘》: 女為夕(易), 羽黃書(書)政事
女康能乃又(有)事(事)乃(隸)察, 女事余于執(執), 親(親)不贈(易), 左右余一人

이 중에서 "敬"・"夕"・"康能"・"不贈"・"我(余)一人" 등의 단어는 두 청동기 민문에서 자주 쓰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문에도 자주 쓰인 용어들로 언어의 담습 현상을 알 수 있다. 또 서주 시기의 《井人女鍾》과 전국시기의 《陳侯因書》 문장을 비교해보면 모두 제사류의 문장들로, 그 순서가 우선 선조의 공덕을 찬양하고, 기록을 만든 제작자 선조의 공덕을 이어받게 됨을 널리 알리며, 마지막으로 제기를 만들어 선조의 공덕을 추념하고 조상이 복을 내려 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두 개가 완전히 같아 문형이 담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5) 특히, 서주 후기 주왕실의 예와이 복귀되면서 민문의 언어도 그 생기를 잃고 틀에 박힌 귀족 서인으로 바뀌면서, 춘추 전국시기에 사용되었던 구어의 빗래 변화를 따라오지 못했다.46) 결국, 청동기 민문의 장중한 문언 형식 때문에 여기가 가장 적게 쓰인 것이다.

45) 서주시기 금왕과 둥왕에서부터 귀왕과 경왕시기에는 이르기까지 40여 편의 청동류 민문은 민문 내용의 순서가 다음과 같다. 시간, 지역, 명을 받은 자, 청명사, 명을 받은 자가 날리 알람, 기록을 만들, 촉원의 순서이다.
46) 예를 들면 춘추 전기인 《國語》에 보이는 주어 뒤에 "者"를 다리는 형식이나, 속어 뒤에 여기가 "也"를 다리는 판단형식이 선추시기의 《春秋公羊法》과 《左傳》, 전국시기 말기의 《睡虎地秦簡竹簡》에는 보이지만, 문법은 한 차례도 쓰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國語・君子皆老》: "展如之人兮, 邦之媛也." 《睡虎地秦簡・爲史之道》 "舌者, 符量也."가 있다.
출토문헌을 통해서 본 한여 문서여기사의 기원과 운용 고찰 209

들체, 청동기에는 기사체 문장이 많기 때문에 여기사의 운용이 활발하지 못했다. 청동기 문헌을 살펴보면 상대는 자명체47)의 내용이 많았고記事體48)의 문장이 적었던 반면, 서주시기는記事體의 문장이 주를 이루었고記事體49)의 문장이 적었다. 이 현상이 출토문헌기사에게 이르면 다시 자명체가 많아지고 기사체, 기언체, 의문체가 늘어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문미기기사 운용면에서 살펴보면, 초기 명문의自名體는 주로 청동기 소유자 표기 위주이므로 당연히 수록 문제가 적었으며 따라서 여기사도 있을 수 없었다.記事體 역시 청동기 성질을 가진 4차구로 대부분의 문장이 왕이 신하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나 명령이 위주가 되는 기사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다양한 여기사가 필요 없었고 다만 여기를 강조하는 “哉”자가 몇 개 쓰였을 다름이다.

《大克鼎》: "敬夙夜用事, 勿廢聴令……, 敬哉!"
주야로 음서 일하고…… 명을 받드는구나!
《何尊》: "敬令, 敬享, 敬!"
치저히 명을 받아서 모시는구나!

기사체 문장은 동주시기의 초중간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전국시기 죽간인, 첨고, 乙墓, 竹簡, 漢朝일지, 竹簡, 信陽長台関, 竹簡, 江陰望山 2호묘 竹簡, 包山竹簡 등의 齊 nulla 문장은 모두 기사체로 어떠한 여기사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長台関, 竹策루와 함께 출토된 長台関, 齊 nulla를 보면 "也", "乎" 4개, "哉", "矣", "矣", "也" 4개, "也" 1개로 진술 의문 감탄여기가 골고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長台関, 齊 nulla는 유가의 정치와 농담을 서술한 형행전서(形

47) 自名體란 《禮記・祭統》에서 "銘者, 自名"라 한 것처럼 기물을 제작한 사람 이름이나 조상의 이름을 새긴 문구를 말한다.
48) 상대 帝乙과 禹 후 시기 이후부터 10-40여자치 있는 정권 문헌에 기물은 만든 이유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사이나 상여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간, 장소, 인용, 일 등은 함께 기록한 문구를記事體라고 한다.
49) 신화에 근거하여 험계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문구를 기언체라 하며 시술적인 내용보다는 구어적인 대화 내용을 기록한 문구를 말한다.
전과 같은 문장이며, 의론체 문장에 속하므로 여기서가 많이 사용되었다. 과
점축간과 상박축간 역시 죽서로 의론문의 성격을 띄고 있어 여기서가 다양하게
쓰였으며, 문미어기사 "乎"지만 예를 들더라도 그 숫자가 상당히 많다.

<table>
<thead>
<tr>
<th>楚竹簡</th>
<th>郢店竹簡</th>
<th>上博竹簡</th>
</tr>
</thead>
<tbody>
<tr>
<td>老子丙</td>
<td>謝公問</td>
<td>孔子詩論</td>
</tr>
<tr>
<td>魯穆公問子思</td>
<td>語囊</td>
<td>成之聞之</td>
</tr>
<tr>
<td>子問</td>
<td>續衣</td>
<td>子長</td>
</tr>
<tr>
<td>乎</td>
<td>1</td>
<td>4</td>
</tr>
<tr>
<td>1</td>
<td>1</td>
<td>1</td>
</tr>
<tr>
<td>5</td>
<td>2</td>
<td>3</td>
</tr>
<tr>
<td>1</td>
<td>1</td>
<td>3</td>
</tr>
<tr>
<td>4</td>
<td>1</td>
<td>1</td>
</tr>
<tr>
<td>3</td>
<td>3</td>
<td>1</td>
</tr>
<tr>
<td>1</td>
<td>4</td>
<td></td>
</tr>
</tbody>
</table>

위에서 기록한 죽간이 적 조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제 사용된 여기
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동기 명문은 자명체, 기사체는 문제의 제
약과 보수적이고 비구어적인 특성 때문에 여기서가 적게 쓰였으며, 충산국 정
동기에 수록된 의론체 문장의 명문이나 죽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여기서가 사
용되었다.

(2) 전해져 오는 문헌의 문제와 문미어기사의 운용

《詩經》은 시인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양한 문미어기사를 사용하여
시를 강조하거나 과장해서 시의 강약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게 하는 작용
을 하였다. 이에 비해서 동시기 삼문체 문헌인 《書經》에는 문미어기사가 哉
(74)·矣(7)·焉(4)·乎(1)·已(1) 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詩經》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있는 문미어기사 "是" 조차도 쓰이지 않았다. 그런데 《書經》
은 편평에 따라 문제를 달리하기 때문에 문미어기사의 운용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尚書》14편 중에서 《顧命》·《堯典》·《禹貢》·《金縢》 등의 4편은
기사체에 해당하며, 이 중 《堯典》은 기사체와 기언체의 문장이 함께 쉬어있는
데 기언체 부분에는 9개의 여기서가 등장하지만(6개의 "哉", 2개의 "矣", 1개
의 "乎"), 기사체 부분에는 여기서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 《顧命》편에도 역시
"哉"와 "乎" 두 개가 기언 부분에 쓰였을 뿐이다.
또 《周易》을 살펴보면, 《周易》은 은상시기와 서주시기를 거치면서 만들 어진 점복서로 문장 형식은 갈골문 복사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갈골문  
문체는 기사체 산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周易》은 정형화된 문명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 마치 《詩經·國風》의 비홍구와도 같은 시적 양상을  
나타내며 여기가 다양한 쓰였다. 상대의 복사와 왕실에서 보관해야 하는  
문서로서 관리가 매우 점진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해야 했고, 문제도 산문  
형태라서 여기가 보강할 필요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周易》는 권위  
있는 무속인의 무속 언어로 구어적이기 때문에 여기사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周易》에 쓰인 비홍구나 격언으로도 증명이 확  
한다.  

《孫子兵法》은 일반적으로 전국시기 초기의 저술로 알려져 있다. 13권의  
내용은 13가지용병술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의론문이다. 여기서 사용  
된 여기사를 살펴보면 “也”가 196개, “乎”가 5개(1개는 시비의문, 2개는 반  
어문, 2개는 갑언문), “哉” 2개, “矣” 12개가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2개의  
“乎”와 1개의 “哉”가 갑언어기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의론문에 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제시기 기연체 문헌인《論語》와 《國語》중에도 동  
장인물들 간의 대화부분에서는 각종 여기사가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  
다.

5. 맺음말

문미어기사란 상고시기부터 지금까지 변화 발전을 거치면서 현대 언어로 이  
어져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어 문미어기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기원의 문제와 어기사의 운용 문제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뿐, 지금까지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일찍이 괴달약 선

50) 《周易·明夷》初九：明夷于飛，垂其翼。君子于行，三日不食。  
《泰》九三：无平不陂，无往不复。  
《損》六三：三人行損一人，一人行則得其友。
생애에 의해 감골문의 “乎”자가 문미어기사로 제기된 바 있었으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부인되었으며 문미어기사 시작시기도 서주, 흔히 춘추시기로 제기된 바 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는 복사의 어법적인 특징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여전히 상대 감골문에서 여기기의 기원을 찾아 제기함으로써, 어떤 문미어기사를 기원으로 살아남은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印”·“聡” 기원설, “哉” 기원설, “乎” 기원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乎”를 문미어기사의 기원으로 삼게 되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증을 삽입 위해 감골문, 문문, 전국시기 축간본과 한대 축백본 등을 이용하여 “乎”의 용법상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또 하나, 서주 춘추시기의 고문헌인 《詩經》에 쓰인 수많은 여기기사가 동시기 고문헌 《書經》에는 문미어기사가 불과 9개 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서주 청동기 문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여기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역시 출토문헌과 고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그 분석 결과를 밝혀도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변 시문체류: 《周易》의 卦와 弁, 《尚書》 중의 《呂刑》·《臘習》·《禹貢》과 《洪範》의 4자구 문단, 《詩經》의 《豳風》·《七月》과 《大雅》·《皇矣》·《公劉》, 춘추시기 청동기 명문의 4자구 문단, 선진시기 특히 청양, 청양 본으로 간주한 《老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고대 시문체의 전통을 이어 받아 3자구 또는 4자구 형식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기역을 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기사가 적게 쓰였다.

둘째, 기사체류: 《詩經》·《石鼓文》·《楚辭》등은 서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미어기사를 사용하여 시를 강조하거나 과장해서 시의 강약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드러내게 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사가 음악이나 춤과 어울려야 하므로 박자와 소리를 끌기 위해서도 여기기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기사체류: 은상시기의 卜辭, 상대 자명체와 기사체의 청동기 문문, 《尚書》의 《堯典》·《禹貢》·《顧命》·《金縢》, 《逸周書》의 《克殷解》·《世俘解》·《嘗麥解》, 전국시기 축간 중의 전책류, 문문과 잡기류, 청양, 趙帛書 등
은 자연 현상, 사회현상, 정치 역사 사건을 서술한 객관적 기록이므로(복사 점
복류의 의문문, 매월 금기 사항을 기록한 설명 부분은 제외)어기사가 적게 쓰
었다.

넷째, 풍습이나 유물체류: 기연체 청동기 명문, 《兪書》의 《阜陶謨》·《大
誥》·《多方》·《微子》·《説誓》·《文侯之命》, 《逸周書》의 《商誓解》·《皇門
解》·《祭公解》, 전구시기 《侯馬盟書》·《 Scrolls》 등 이러한 종류의 문
헌은 왕이 신하인 제후나 일반백성에게 혼제하는 내용이므로 기사어기사나 감
탄어기사인 “哉”이외는 자주 쓰이지 않는다.

다섯째, 의론체류: 전구시기 명문 《中山王鼎》·《中山王方壺》, 《兪書》의 《呂刑》·《洪範》, 長兮關竹書 《孫子兵法》, 《國語》·《論語》·
《荀子》 등의 충주 전구시기의 제자 신문은 상대를 설득시키려는 논리성이
강한 의론문이므로 어기사가 많이 쓰였다. 그러나《侯馬盟書》·《秦青川木
賛》·《秦律雜抄》등 의론문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장에
서는 어기사가 적게 쓰였다.
【參考文獻】

何樂士 (2000) 《古漢語語法研究論文集》，商務印書館
楊合鳴 (1993) 《詩經句法研究》，武漢大學出版社
趙克勤 (1994) 《古代漢語詞匯學》，商務印書館，1994
何定生 (1928) 《漢以前的文法研究》，中山大學語言歷史研究周刊 (三)
何定生 (1928) 《尚書的文法及其年代》，中山大學語言歷史研究周刊 (五)
管燮初 (1981) 《西周今文法研究》，北京：商務印書館
王力 (1980) 《漢語史稿》中冊，中華書局
郭錫良 (1988, 1989) 《先秦語氣詞新探》，《古漢語研究》
李連良 (1980) 《中國語文研究》，香港中文大學 1期
張振林 (1982) 〈先秦古文字材料中的語氣詞〉，《古文字研究》
李學勤 (1980) 《關於師湘卜辭的一些問題》，《古文字研究》
裘錫圭 (1988)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中國語文》
趙誠 (1992) 〈甲骨文動詞探索〉，《古文字研究》
張玉金 (1990) 〈卜辭中瞥的用法〉，《中國語文》
張玉金 (1988) 〈甲骨卜辭中 "惠" 和 "唯" 的研究〉，《古漢語研究》
陳昭容 (1998) 〈關於 "甲骨文被動式" 研究的檢討〉，《甲骨文發現一百年學術研究會
討論集》
王暉 (1989) 〈試釋 "在 " 的兩種罕見用法〉，《古漢語研究》
陳永正 (1986) 《西周春秋銅器銘文中的連結詞》，《古文字研究》
趙平安 (1991) 《論銘文中的一種特殊句型》，《古漢語研究》
大西克也 (1989) 《論 "母"、 "無"》，《古漢語研究》
王鎧 (1982) 〈雲夢秦墓竹簡所見某些語法現象〉，《語言研究》
馮春田 (1986) 《秦墓竹簡某些語法現象分析》，《語言研究》
張玉金 (1995) 〈論殷墟卜辭命辭的語氣問題〉，《古漢語研究》3期
許仰民 (2001) 《古漢語語法新編》 河南大學出版社
【中文題要】

殷商時代是否已有語氣詞？這是甲骨文發現以來爭論不休的問題之一。最早談到句末疑問語氣詞的是郭沫若。後來王力、郭錫良認為是從西周時期產生的。張振林認為到春秋時代才形成了一個語氣詞系統。李學勤、裘錫圭他們認爲卜辭中有句末疑問語氣詞“印”、“執”二字。據我的考察可知：甲骨文“印”、“執”二字放在句末的情況比較複雜，但就文字清晰可識，辭義，又是浮庚之後。這樣理解，並不等於說有關卜辭便不是疑問句了。有極少數卜辭句末的“印”和“執”可能省理解為“句末語氣詞”。但並非所有句末的“印”、“執”都是疑問語氣詞。根據我考察的卜辭中有些“乎”出現在句尾。例如：壬午卜：燎土，延巫帝乎。（合集21075），丁未卜，扶：侑威戊，學戊乎。（合集20098）等等。這些例中的“乎”，還是看成句末語氣詞為好。“乎”主要用在疑問句、反問句中，表示疑問和反問語氣。戰國以前“乎”很少用在特指文句中，戰國中期以後才逐漸多起來。

還有先秦文獻中，記事性詩體類、記事體類、銘命類對語言氣詞的運用最少，如《周易》卦，灸辭，《尚書》和絕大多數商周銘文，而歌體類，議論體類對語言氣詞的運用最多，如《詩經》、《孫子兵法》和中山王錫器銘文等。

【主題語】

출토문헌，전해져 오는 문헌，역사이법，이중증거법，문미어기사，“印”，“執”，“乎”，문체
(附錄1) 近期出土 突出現象

| 出土地點 | 出土時期 | 首見時期 | 聚集數 | 出土數 | 《竹簡》期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江陵曾店 M1</td>
<td>1973年</td>
<td>戰國早期</td>
<td>24</td>
<td>47</td>
<td></td>
</tr>
<tr>
<td>2. 鄧陵長台關 M1</td>
<td>1957年</td>
<td>戰國早期</td>
<td>148</td>
<td>約1700</td>
<td></td>
</tr>
<tr>
<td>3. 江陵長星觀 M1</td>
<td>1978年</td>
<td>戰國中期</td>
<td>70</td>
<td>約4500</td>
<td></td>
</tr>
<tr>
<td>4. 荊門包山 M1</td>
<td>1987年</td>
<td>戰國中期</td>
<td>278</td>
<td>12472</td>
<td>1(竹簡) 154</td>
</tr>
<tr>
<td>5. 江陵望山 M1</td>
<td>1965年</td>
<td>戰國中期</td>
<td>24</td>
<td>約1000</td>
<td></td>
</tr>
<tr>
<td>6. 江陵望山 M2</td>
<td>1966年</td>
<td>戰國中期</td>
<td>67</td>
<td>約900</td>
<td></td>
</tr>
<tr>
<td>7. 賜利石板村 M36</td>
<td>1987年</td>
<td>戰國中期</td>
<td>4557</td>
<td>約2000</td>
<td></td>
</tr>
<tr>
<td>8. 德山陶墳 M2</td>
<td>1984年</td>
<td>戰國中期</td>
<td>2</td>
<td>54</td>
<td></td>
</tr>
<tr>
<td>9. 長沙仰天湖 M25</td>
<td>1953年</td>
<td>戰國末期</td>
<td>43</td>
<td>約280</td>
<td></td>
</tr>
<tr>
<td>10. 長沙望城牌 M406</td>
<td>1952年</td>
<td>戰國末期</td>
<td>37</td>
<td>約95</td>
<td></td>
</tr>
<tr>
<td>11. 長沙楊家灣 M6</td>
<td>1954年</td>
<td>戰國末期</td>
<td>72</td>
<td>約37</td>
<td></td>
</tr>
<tr>
<td>12. 臨澧九里 M1</td>
<td>1980年</td>
<td>戰國中期</td>
<td>100</td>
<td>不明</td>
<td></td>
</tr>
<tr>
<td>13. 江陵秦家嘴 M1</td>
<td>1986年</td>
<td>戰國中期</td>
<td>7</td>
<td>不明</td>
<td></td>
</tr>
<tr>
<td>14. 江陵秦家嘴 M13</td>
<td>1986年</td>
<td>戰國中期</td>
<td>18</td>
<td>不明</td>
<td></td>
</tr>
<tr>
<td>15. 江陵秦家嘴 M99</td>
<td>1987年</td>
<td>戰國中期</td>
<td>16</td>
<td>不明</td>
<td></td>
</tr>
<tr>
<td>16. 江陵九店楚墓</td>
<td>1981年</td>
<td>戰國中期</td>
<td>不明</td>
<td>不明</td>
<td></td>
</tr>
<tr>
<td>17. 江陵雞公山 M48</td>
<td>1991年</td>
<td>戰國</td>
<td>不明</td>
<td>不明</td>
<td></td>
</tr>
<tr>
<td>18. 湖北老河口 M</td>
<td>1992年</td>
<td>戰國</td>
<td>不明</td>
<td>不明</td>
<td></td>
</tr>
<tr>
<td>19. 湖北黃州 M</td>
<td>1993年</td>
<td>戰國</td>
<td>不明</td>
<td>不明</td>
<td></td>
</tr>
<tr>
<td>20. 郭店楚簡</td>
<td>1993年</td>
<td>戰國中期</td>
<td>730</td>
<td>12,072</td>
<td></td>
</tr>
<tr>
<td>21.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td>
<td>2000年</td>
<td>戰國末期</td>
<td>1200</td>
<td>35,000</td>
<td></td>
</tr>
</tbody>
</table>
(부록 2) 진한시기 簡帛 出토현황

<table>
<thead>
<tr>
<th>간책 명칭</th>
<th>출토시기</th>
<th>수량</th>
<th>글자수</th>
</tr>
</thead>
<tbody>
<tr>
<td>1 四川青川木簡</td>
<td>1980년</td>
<td>1件</td>
<td>146</td>
</tr>
<tr>
<td>2 甘肅天水放馬灘簡簡</td>
<td>1986년</td>
<td>460枚/4件</td>
<td>不詳</td>
</tr>
<tr>
<td>3 湖北云夢睡虎地秦簡</td>
<td>1975年</td>
<td>1167枚</td>
<td>近3.8万</td>
</tr>
<tr>
<td>湖北云夢睡虎地木簡</td>
<td>1975年</td>
<td>2件</td>
<td>527</td>
</tr>
<tr>
<td>4 湖北云夢龍崗秦簡</td>
<td>1989年</td>
<td>約237枚</td>
<td>約3000</td>
</tr>
<tr>
<td>湖北云夢龍崗木簡</td>
<td>1989年</td>
<td>1件</td>
<td>38</td>
</tr>
<tr>
<td>5 湖北江陵楊家山秦簡</td>
<td>1990年</td>
<td>75枚</td>
<td>約750</td>
</tr>
<tr>
<td>湖北江陵高台木簡</td>
<td>1990年</td>
<td>4件</td>
<td>142</td>
</tr>
<tr>
<td>6 广西貴縣羅泊灣簡簡</td>
<td>1976年</td>
<td>10枚/5件</td>
<td>408</td>
</tr>
<tr>
<td>7 湖南長沙馬王堆帛書</td>
<td>1974年</td>
<td>28件</td>
<td>12万多</td>
</tr>
<tr>
<td>湖南長沙馬王堆簡簡</td>
<td>1972/74年</td>
<td>922枚/7件</td>
<td>9000多</td>
</tr>
<tr>
<td>8 湖北江陵張家山漢簡</td>
<td>1983-84年</td>
<td>2000多枚</td>
<td>不詳</td>
</tr>
</tbody>
</table>